늦가을 더 깊어진 남도의 멋·맛·향

깊어가는 가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남도의 멋과 맛·향이 가득 담긴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려 관광객을 유혹한다. 남도 음식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는 '순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를 시작으로 국화 꽃 향기에 푹 빠져들 수 있는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영암 왕인 국화축제' 등 국화 축제가 연이어 이어진다. 또한, 대흥사 단풍 체험 축제와 보성 소리축제, 벌꼬 꼬막 축제 등도 뒤를 이을 예정이다.

음식·소리·국화·단풍·꼬막… 광주·전남 지역축제 줄이어

◇**남도음식문화축제**=순천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낙안읍성에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개막한다. 남도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음식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이 축제는 올해로 16번째를 맞는다.

도내 20개 시·군의 대표 음식들이 전시되는 남도음식전시관에서는 초가형과 몽골 부스 등이 주변에 설치돼 해당 시·군 음식 및 시·군 특산품이 판매된다.

또 프랑스 음식 시식관과 중국 영파시 음식 시식 및 판매관, 순천 자연밥상·미인밥상 등 색다른 음식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남도의 정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터도 개설,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된다.

특별 행사로는 만화가 허영만 화백 팬 사인회, 음식기네스 도전, 로컬푸드 포럼 등이 선보인다. 특히 지난 2007년 충남 공주에서 세운 기네스 기록 700m를 넘는 1천m 이상의 '세계 최장 인절미'를 순천 찹쌀로 만들 계획이다. 〈관련기사 10면〉

이밖에 통기타 공연·영화상영·동편제 소리공연·가야금 병창·콘서트·퓨전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한 순두부 만들기 등 남도 음식 배우기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보성서는 남도 맛과 소리 축제**=보성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벌교읍에서 '2009 벌교 꼬막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겨울철 별미인 꼬막 잡기·꼬막까기·꼬막 삶고 시식하기 등 다채로운 꼬막 체험 행사와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서 가족과 함께 문학 기행을 할 수 있는 테마 축제로 마련된다.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도 다음달 7일과 8일 보성군 실내체육관 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국판소리·고수 예선과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 조상현·성창순·안숙선·김일구 등 국내 유명 인간문화재 및 명창들이 출연하는 천하제일 명창공연 등 판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국화 향기·단풍 속으로**=함평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59만㎡의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린다.

이번 국향대전은 국화로 만든 숭례문, 마법의 성, 황소 조형물, 세계풍물 기행작품, 대형 국화분재, 곤충 모형 특수작 등 대형 야외 기획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국향대전의 백미인 국화작품 전시관에는 국화 분재, 입국, 현애국, 다륜대작, 입국다간작, 복조작 등 전문기술이 도입된 수백 점의 수준 높은 국화 작품이 전시된다.

나비생태관에는 국화동호회 회원들이 1년여 동안 정성들여 가꾼 550여 점의 국화 작품 분재 등이 전시되며, 낙엽과 억새 등 가을 이미지를 배경으로 메뚜기와 네발나비 등 총 11종 1만여 마리의 가을 곤충을 만나는 풀벌레관, 나비관 등도 운영된다.

공원 잔디광장에는 가로 14m 폭 6m 높이 8m 규모의 숭례문을 성벽 조형물과 함께 재현했고 에펠탑,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등의 세계 풍물기행 10점도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영암군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5일간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왕인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왕인 국화축제에는 화분 국화와 구조물 작품 등 형형색색의 화려한 국화가 아름다운 시와 함께 전시된다.

왕인 공원은 분화국화 작품으로 꾸며지고, 공원 내에 별도로 1천400㎡의 대형텐트에는 분재국화를 비롯한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주 전시관이 마련된다.

전시될 작품 8만여 점 중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구조물 작품과 분재, 입국 등 4만4천 점을 제외한 3만6천 점의 소국분화는 농가에서 직접 기른 것이다.

광주시 북구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구청 광장에서 국화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륜대작·국화분재·사루비아·메리골드·백일홍 등 100만송이가 선보인다.

각 자치단체들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 열 감지기, 손소독기, 세정제, 체온계 등을 갖춘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 축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가을축제 현황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장소
대한민국국향대전	10. 29~11. 22	• 국화 조형작품 전시, 국화 동호회 특수작품·국화분재 전시, 수채화 및 국화들녘 연출, 전국 문화관광해설가 경연대회, 국화음식 페스티벌	함평 엑스포공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10. 29~11. 1	• 상달제, 남도음식 명인관 운영, 음식경연대회, 도전 기네스전, 전통혼례 등	순천낙안읍성
영암왕인국화축제	10. 29~11. 22	• 국화축제 전시관 운영, 2009 국향 콘서트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
보성소리축제	11. 7~11. 8	•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전국고수 경연대회	보성 실내체육관
벌교꼬막축제	10. 30~11. 1	• 꼬막잡기 체험, 꼬막 널배타기 체험	벌교읍
대흥사단풍체험축제	11. 13~11. 15	• 축하공연, KBS 빛고을 가요 차차차, 단풍노래 자랑, 오색단풍걷기대회, 황토염색체험, 도자기빚기, 등반대회 등	대흥사
국화 전시회	10. 27~11. 5	• 국화분재 등 꽃 100만송이 전시	북구청 광장

27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막을 올린 '국화 전시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구청 광장에 수놓아진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16회 광주 김치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27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시식코너에서 김치를 맛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확 달라진 광주김치문화축제 개막 사흘만에 20만명 인파

제16회 광주김치문화축제 방문객이 개막 이후 사흘 동안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등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하고 있다.

특히 전시·체험·국제컨퍼런스 등 5개 분야 총 39종에 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이번 축제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김치의 세계화와 김치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김치문화축제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외국인 3천명을 포함해 총 20만명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행사장에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치주제관을 비롯해 김치직거래장터, 음식거리, 특산물거리 등 행사장에는 관람과 시식체험, 구매를 하려는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또 김치담그기 체험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축제의 인기몰이 비결은 전시내용 등 축제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치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한국김치협회와 세계김치협회 회원, 한식세계화추진위원 등 전국 유명 단체들을 포함시켰다.

행사 구성도 전시·체험·국제컨퍼런스·콘테스트·김치마켓·식객거리 등 5개 분야 총 39종에 달해 다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 부문에서 지난해 김치 주제관인 김치오감박물관이 300여평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세계김치연구소 홍보관', '세계웰빙식품발효관', '양념·향신료의 비밀관', '세계음식문화관', '팔도김치문화관' 등 5개관 1천평 규모로 확대됐다.

국제학술행사도 미국, 호주, 스페인 등 해외 발효식품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해 '김치의 세계화'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치러졌다.

김치 마케팅 부문에서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추진위는 행사 기간 동안 옥션, 디앤샵 등 6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광주 '감칠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김치 판매액이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김치문화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줬다"며 "광주가 세계적인 김치연구의 메카이자 국내 김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